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호 (2023.0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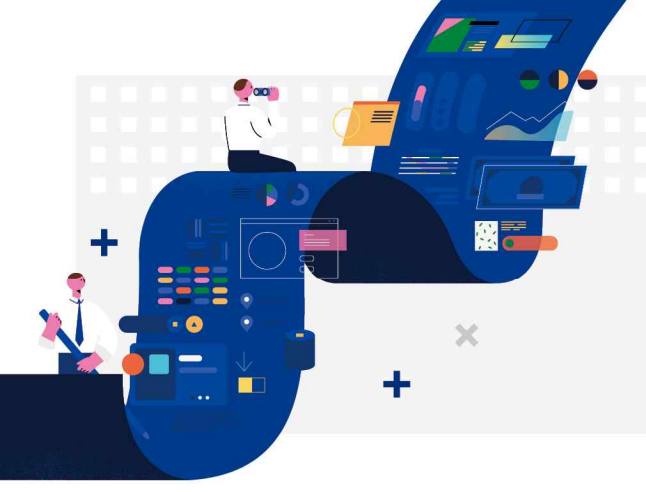
■ 이 슈

(국제)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과
인천시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호 (2023.04.14)

Cotents

I. 이 슈

(국제)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과 인천시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5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8

III. 국내 정책동향

(행정)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주도 지방시대 개막 9

(규제)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 9

(교통) 이용자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 개시 10

(관광) 접경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개방 10

(투자) 과기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 발표 11

(고용)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을 통한 기술 초격차 확보 추진 11

(경기)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2023-2024년 한국 경제전망 12

(교통)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2023년 12월 서비스 예정 12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국제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과 인천시 시사점



#반도체 #산업주도권 #산업정책 #지방정부의 역할

- 2022년 8월,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및 과학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선점을 위하여 「반도체 과학법(CHIPS¹⁾ and Science Act)」을 발효²⁾
 - 미국의 경우 반도체 생산(제조)이 아닌 고부가가치인 설계에 집중하던 국가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조업의 필수 재료인 반도체 및 주요 광물의 공급 교란 문제가 발생하며 경제 안보의 위험성을 체감
 - 반도체 관련 제조시설을 자국과 가까운 국가로 옮기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넘어 자국 내의 이전을 촉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
 - 이에 반도체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미국 반도체산업의 기술과 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총 2,800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 및 반도체산업 보조금을 편성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과학법」은 3개 부문(Division), 7개의 타이틀(Title), 260여 개의 장(Section)으로 구성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반도체 제조시설의 확장 및 현대화 △인력 개발 및 R&D △펜타곤-민간 기업 간 협력 장려 △국제 기술 보안 및 혁신 활동 촉진 등
 - 동 법령은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등의 우려 국가에 대한 거래를 제한 △초과이익 공유 △미국내 첨단반도체 공장 접근 허용 의무 △상세 사업계획서 제출 등 가드레일 조항 및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금 수급을 위한 심사기준이 복잡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
 -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중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생산 및 수출의존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
 - 동 법은 미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반도체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향후 10년 동안 제한하고 있어, 지속적인 설비 투자 및 교체가 중요한 반도체장비 특성상 5-10년 이후에는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중국 공장의 정상적 가동이 어려울 전망
 - 또한 지원금 수급을 위한 동 법의 세부 규정³⁾은 사실상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영업기밀 유출에 따른 경영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

1) CHIPS :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2) 법안 및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법안 발효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씩 발표 중으로, 아직까지 모든 조항의 세부지침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

3)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CHIPS Incentive Program)의 세부 규정(자금 수혜 공지,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NO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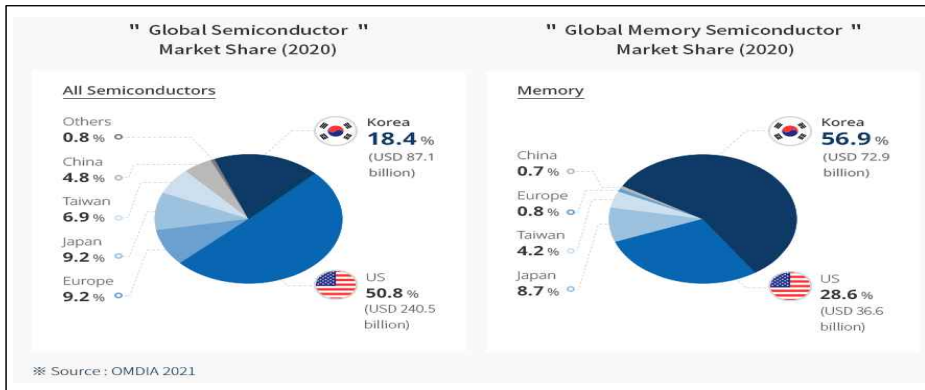
[표 1] 미국 「반도체 과학법」 개요

부문	타이틀	주요내용
A. CHIPS Act of 2022	-	- 반도체 제조 및 R&D 지원 - 반도체 연구 허브 및 인력 개발 지원 - 국제 정보통신 기술보안 및 반도체 공급망 지원 - 무선 통신 공급망 혁신 지원 등
B. Research and Innovation	I. DEPARTMENT OF ENERGY SCIENCE FOR THE FUTURE	- 에너지부 과학실의 기초과학 R&D 프로그램 지원 - 기타 에너지부 과학 및 혁신 활동 등
	II.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FOR THE FUTURE	- NIST 연구 활동 - 제조업 지원 프로그램(Manufacturing USA) - 제조 확대 파트너십(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등
	III. NATIONAL SCIENCE FOUNDATION FOR THE FUTURE	- 기술혁신협력국(Directorate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Partnership) 신설을 통한 국내 역량 강화 - NSF 핵심 연구 활동 지원 확대 등
	IV. BIOECONOMY RESEARCH AND DEVELOPMENT	사회복지, 국가 안보, 지속가능성, 경제적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훈련 지원 등
	V. BROADENING PARTICIPATION IN SCIENCE	- 연구보조금에 대한 유연성 확대 - 농촌지역 고품질 STEM 교육 지원 등
	VI. MISCELLANEOUS SCIENCE AND TECHNOLOGY PROVISIONS	- 신입연구원 지원 - Recompete Pilot 지원 - 지역 기술 허브 지원 - 해안 및 해양 산성화 연구 지원 등
	VII.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AUTHORIZATION ACT	- 달-화성 프로그램 사무소 설립 - 국제우주정거장 운영 - 초효율, 저배출 비행 시연 등
C. Supplemental Appropriations to Address Threats to the SCOTUS	-	대법원에 대한 위협 해결을 위한 미국 보안관 및 대법원의 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자금 승인

* 자료 : 「반도체 과학법」 본문, 백악관 보도자료(2022.0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2.08.30.) 등 참고 및 재구성

-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이하 WSTS)에 따르면,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4.1% 감소할 전망
 - 2022년 11월 기준, WSTS는 2021년 26.2%의 거대한 성장을 이룬 국제 반도체 시장이 2022년에 성장이 둔화(△4.4%)된 후, 2023년에는 국제 반도체 시장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반도체 시장의 경기 부진을 우려

- 2020년 기준 국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50.8%), 한국(18.4%), 유럽 및 일본(9.2%) 순이며, 메모리반도체를 기준으로는 한국(56.9%), 미국(28.6%), 일본(8.7%) 순
-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0년(’01~’20)간 국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50% 내외로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감소(27.8%→9.2%), 한국(5.7%→18.4%)과 중국(0.2%→4.8%)이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



* 자료 : INVEST KOREA., "Industries and Site-Industries-Semiconductor"(23.04.04 기준)

〔그림 2〕 반도체 시장 국가별 점유율

- 미국에서는 「반도체 과학법」이 발효된 이후, 반도체기업의 신규 제조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주정부들이 나서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
 - 뉴욕주는 △「Green CHIPS Act(New York State Senate Bill S9467)」 시행 △인프라 구축 지원 △커뮤니티 발전기금 지원 △ Onondaga County 재산세 감면 및 인력 및 교육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및 인프라 사용료 등을 감면
 - 오하이오주는 △인프라 지원 △일자리창출 세제 혜택(Job Creation Tax Credit, HB 687) 등의 정책을 통해 입지 기업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세액공제 혜택 제공
 - 텍사스주는 △「텍사스 경제개발법」 챕터 3134) △테일러시 정부 인센티브 △윌리엄슨 카운티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입지기업을 위한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재산세를 감면
 - 애리조나주는 △주정부 지원 △채들러시 정부공장 인프라 비용 부담 등을 통해 인텔에게 1,800만 달러를 간접 지원
 - 아이다호주는 「Idaho 반도체지원법(HB678)」을 통해 △건설자재 구입 세금 감면 △투자금액 상당 판매세 면제 △임금 및 판매세 대상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유럽연합(EU) 및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 역시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령·정책을 도입

4) 2001년 입법된 법안으로, 2022년 12월 만료 예정.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공장을 설립하는 삼성전자는 동 법 만료 이전에 9개 팹 1,676억 달러 투자방향서에 대한 세금 감면을 승인받아 48억 달러 혜택.

-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3월 30일, 국내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K-Chips Act(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
 - 동 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골자
 - (2023년 한정)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의 10%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세액을 공제하여,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유럽연합은 2022년 12월 27개 회원국이 역내 반도체 생산 점유율 확대를 위한 「EU Chips Act(EU-칩스법)」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⁵⁾
- 중국은 중국 재정부와 주요 국유기업이 출자하여 조성한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대기금)’를 통해 SMIC(中芯國際)와 UNISOC(紫光展銳), 칭화 유니 등의 기업에 투자하며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
- 일본 역시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생산에 국비 8,000억 엔을 투입할 계획⁶⁾

○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인천 역시 미국 주정부의 인센티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인천시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

- 인천의 경우 기구축된 반도체기업 입지에 더해 △국가산업단지 △항공 △항만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타지역에 비해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비교적 뛰어난 수준
 - 인천은 수출입 품목 및 해외 바이어·협력사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도 타지역에 비해 우수
 - 세계 2-3위 수준의 패키징 앵커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및 스태츠칩팩코리아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한미반도체 등이 인천에 위치
 - 인천의 반도체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167.9억 달러로, 반도체는 2017년 이후 인천의 수출 1위 품목을 유지
- 인천은 지역의 이점을 살려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 및 혜택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할 계획
 -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⁷⁾’로 신규 지정받기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고 특화단지 유치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시 △입지확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 △인력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확보 가능
 - 뿐만 아니라 시는 2023년 1,500억 원 규모의 ‘인천빅웨이브모펀드(舊 인천혁신모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인 반도체 및 바이오 분야와 청년창업 기업에 집중투자할 예정

5) 2030년까지 EU의 국제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20%로 확대하여, 아시아, 미국 등 타지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 감소가 목표.

6)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도체 관련 예산 1조 3,000억 엔을 책정하였으며, 그중 700억 엔을 토요다, 키옥시아, 소니 등 8개 업체가 합작설립한 반도체기업인 ‘라피더스’에 지원.

7) 인천시는 특화단지로 인해 13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조 7,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4만 5,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제조 >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 2023년 2월 기준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증가하였으며, 완성차와 부품수출액을 합산한 총수출액이 약 76.2억 달러 규모로 국가 1위 수출 품목으로 부상⁸⁾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완화 및 조업일수 증가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약 30.2% 증가하였으며, 특히 기아 및 쌍용차의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30%를 초과하며 생산량 증가를 견인
 - 내수의 경우 신형 그랜저, 코나, 토레스, 카니발, 스포티지 등 인기 모델의 신차효과 및 꾸준한 수요로 인해 현대차, 기아, 쌍용차 모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
 -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의 수출량 증가와 더불어 국산차의 상품성 강화에 따른 해외시장에서의 판매호조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8%, 자동차 수출액은 45.8% 증가
 - 자동차 부품수출액 역시 북미 및 EU 지역의 수출 증가를 토대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3.3% 증가

[표 1] 국내 자동차산업 생산, 내수판매, 수출 추이

(단위 : 대, 억\$)

구분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3.01	'23.02
생산 (증감률)	324,668 (9.1)	284,361 (21.1)	307,721 (34.1)	327,486 (24.2)	379,797 (25.4)	353,405 (10.8)	306,738 (13.2)	343,575 (30.2)
내수 (증감률)	143,293 (-3.0)	131,638 (1.0)	140,242 (23.1)	144,363 (15.2)	155,942 (8.4)	161,171 (4.8)	116,565 (4.7)	147,031 (19.6)
수출 (증감률)	223,633 (23.5)	168,155 (23.8)	192,863 (27.1)	208,544 (30.7)	219,489 (22.6)	229,292 (19.5)	200,825 (11.8)	222,934 (34.8)
수출액 (증감률)	51.4 (25.4)	41.2 (36.0)	47.9 (34.6)	49.2 (28.4)	54.0 (31.0)	54.3 (28.3)	49.8 (21.9)	56.0 (45.8)
부품수출액 (증감률)	20.3 (2.0)	18.1 (14.6)	20.1 (8.6)	18.4 (2.8)	18.6 (0.9)	19.9 (-6.3)	17.3 (-16.2)	20.2 (13.3)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3.03.2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점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표기

8)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2023.03.20.)'.

- **(전국)** 2023년 2월 기준 국내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9.8% 상승하였으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한 76.1억 원을 기록
 - **(생산지수)** 전국 자동차 생산지수는 전월 대비 9.8%, 전년 동월 대비 26.2% 증가한 123.7로 집계
 - 지난 2개월('22.12~'23.01) 간의 기저효과로 인하여 생산지수가 상승하였으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실질 생산은 약 4.8% 감소한 것으로 판단
 - **(품목별 수출액)** 특장차를 제외한 국내 자동차 품목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자동차 관련 모든 품목에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나, 그 변동 폭이나 추세는 세부 품목별 차이가 존재
 - 화물차의 수출액이 전월 대비 24.7%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부품(16.8%)', '전기차(14.0%)', '승용차(11.5%)', '기타 자동차(11.1%)' 순
 - 소방차, 탱크로리, 차량운반차, 냉동탑차 등을 포함하는 특장차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3%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6.8% 감소
- **(인천)** 2023년 2월 기준 인천지역의 자동차 생산지수는 127.2로 전국지수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1.8% 증가한 약 6.5억 달러 수준
 - **(생산지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9.5%, 전월 대비 11.7% 증가하며, 2022년 2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
 - **(품목별 수출액)** 전국 추이와 다르게 인천의 자동차 품목별 수출액은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로 전환
 - 직전월 대비 수출액 상승폭이 가장 큰 부문은 '기타 자동차(51.1%)', '특장차(36.7%)', '자동차 부품(20.6%)' 순이나, 특장차와 달리 기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수출액 증가는 지난 1월 수출액이 감소했던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확인
 - 인천의 전기차 수출액은 2022년 9월 8,323천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으나, 이후 급락한 이후 기존 수출액 수준을 유지

[표 2] 국내 자동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2.11	'22.12	'23.01 (p)	'23.02 (p)	'22.02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자동차 제조업	136.4	131.9	112.7	123.7	98.0	9.8	26.2
인천	자동차 제조업	141.7	123.8	114.2	127.2	98.2	11.7	29.5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의 자료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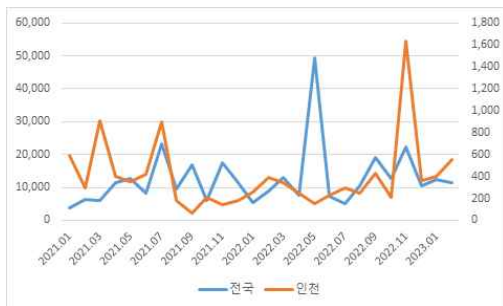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승용차(MTI7411)]



[화물자동차(MTI7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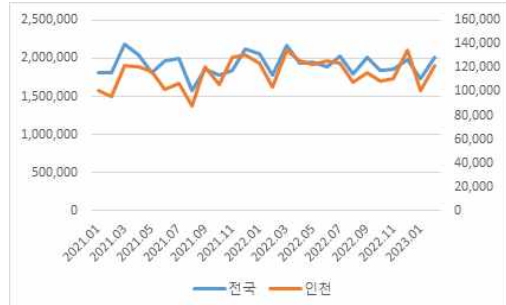
[특장차(MTI7413)]



[전기차(MTI7414)]



[기타 자동차(MTI7419)]



[자동차 부품(MTI74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2 : 2021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승용차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해당 기종이 기타 자동차로 분류되며 전국 및 인천 지표의 변동 확대

[그림 1] 자동차 품목별 수출 동향(2023.02)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3.02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76.6	-36.1	71.1	-32.7	172.4	24.7	109.0	-11.5	107.0	-11.6	161.7	56.4
자동차	123.7	26.2	121.7	26.0	111.8	33.4	127.2	29.5	119.4	19.5	194.0	258.6
기계장비	103.3	8.6	102.1	6.5	150.8	16.1	127.6	24.1	139.4	31.9	102.0	-3.5
바이오-의약	114.8	18.6	111.9	12.1	-	-	117.6	20.5	81.6	36.0	-	-
바이오-화장품	85.8	-17.3	89.5	-10.6	107.5	-3.3	97.1	-0.3	91.8	-2.3	93.8	17.3
건설 수주액 (억원, %)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17,121	-4.8	90,236	-6.5	1,427	-58.5	3,050	26.6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 동월 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행정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주도 지방시대 개막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교육·산업·문화·복지·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수립 중
 - 제5차 계획은 ‘지방정부 주도 상향식(Bottom-up) 전환’,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혁신적인 지역 정책 수립’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 계획의 4대 전략은 △지역을 살리는 과감한 교육개혁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수립
 - 국회에서는 현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 중
 -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자치분권 관련 과제가 추가되어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

규제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
 - ICT 규제샌드박스는 162개의 신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으며,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중 63건은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 달성
 -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제도기반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신규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 및 신청 감소, 규제개선 속도 및 불확실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사항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지속
 -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규제샌드박스 전주기(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
 - 이를 위해 △실증과제 발굴 방식 및 경로 확대 △실증여건 개선 및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책임 추진 △국내 시장안착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목표로 10가지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의 출발·도착시간 및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와 ‘우리 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할 계획
 - 그간 육상운송 대중교통의 운행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바다에서는 여객선의 운행정보가 불명확하여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증가
 - 이에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마련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
 -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PATIS)’를 이용하면 연안여객선 157척에 대하여 △운항 여부 △실시간 위치 △출발시간 △도착시간 △현재 기상정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우리 가족 배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화물선에 탑승한 선원 등 가족의 현재 위치를 안내할 계획
 - 동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국내 화물선 1,300여 척을 대상으로 하여, 해운선사(선박소유자)의 확인을 거친 후 서비스 신청자에게 위치정보를 안내

#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 통합

- 정부는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인근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자유·안보·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노선을 오는 4월 21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
 -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를 접하고 있는 10개 접경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11개 코스
 - 각 코스는 도보 및 차량이동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참여자의 안전 및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일부 구간에서는 직접 걸으며 분단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
 - 참가 희망자는 ‘평화의 길’ 누리집과 걷기 여행 모바일앱인 ‘두루누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테마노선 참가 때에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걸치며, 참가비(1만원)를 받는 대신 참가자들에게 지역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예정
 - 정부는 이번 테마노선 개방이 침체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비무장지대 및 그 일원을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민·관 R&D 약 160조원을 투입해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 중점 확보를 추진하여 2027년까지 5년간 3대 주력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하고, 범부처 차원의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
 - 이에 더해 석·박사급 인력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민간 진출 지원과 연구자 중심의 인프라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
 - 3대 주력기술별 미래 핵심기술(안)

주력기술	주요내용	핵심기술 수
반도체	(소자) DRAM/NAND 완성도 수준의 신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기술	10개
	(설계) 인공지능·6G·전력·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	24개
	(공정) 소재·장비·공정 자립화를 위한 前공정·後공정 기술	11개
디스플레이	(초실감) AR·VR·MR 등 초고해상도 구현 기술, 3D·홀로그램 기술	11개
	(다중감각) 시각 외에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	4개
	(가변형·융복합) 평면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입체공간을 구현하는 초평면 공간 영상 기술, 의료·생체 등에 탈부착하여 신체 정보 센싱·모니터링 기술	13개
차세대전지	(이차전지) 에너지 밀도 한계 돌파, 화재방지 향상, 非희귀성 원료 활용 등을 위한 기술	14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효율, 내구성·안전성 향상, 핵심소재 국산화 및 신소재 기술	7개
	(동위원소전지) 우주, 극지 등 극한 환경에서 고출력·고효율, 안전성 확보 기술	6개

고용 >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을 통한 기술 초격차 확보 추진

#보건복지부

- 정부가 미래 유망 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를 반도체산업에 이은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추진
 -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전문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
 -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현장 기반 교육 제공 △현장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인재양성 △핵심 연구인재 육성 △튼튼한 인재양성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추진할 계획
 - 양질의 전문인재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 △실습교육 확대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충 △생산공정 실습시설 신규 구축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 규제과학 교육 제공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 확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창업 연계 거버넌스 구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예정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AMRO)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대외 수요 약화에 따른 수출감소로 인하여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7%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2024년 역시 경제성장률이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AMRO는 국제 원자재 및 식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들에서와 같이 한국의 인플레이션 역시 둔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지역경제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
 - 단기적으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재상승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둔화 △미국의 급격한 정책금리 상승 △중국 경기회복 지연 △전파력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등의 경기 하방요인을 제시
 - 중·장기적 위험요인으로서는 △이자부담 증가 및 경기둔화로 인한 금융 취약성 △미·중 갈등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분절화 심화 △급격한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아세안+3 지역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구분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2022(예상)	2023	2024	2022(예상)	2023	2024
아세안 +3	3.2	4.6	4.5	6.5	4.7	3.0
+3국가	2.6	4.5	4.3	2.9	2.3	2.1
중국	3.0	5.5	5.2	2.0	2.0	2.5
홍콩	-3.5	4.3	3.0	1.9	2.3	2.5
일본	1.0	1.2	1.1	2.5	1.5	1.1
한국	2.6	1.7	2.3	5.1	3.3	2.2
아세안	5.6	4.9	5.2	7.9	5.7	3.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연계하여 단일 플랫폼을 이용해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최적 경로 안내·예약·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단위 MaaS를 위한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
-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전국 대상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협약을 체결
 -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2023년 12월부터 협력기관과 함께 MaaS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범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모든 민간 플랫폼 기업과 지자체 등에 오픈 MaaS 시스템을 전면 개방할 방침
- 국토부는 MaaS를 통해 기존 교통수단의 수송효율을 향상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등 교통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 자료

- CONGRESS.GOV, 「H.R.4346-Chips and Science Act」, 2022.08.09.
- THE WHITE HOUSE,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e Jobs, Strengthen Supply Chains, and Counter China”, 2022.08.09.
- COSSA, “Analysis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2022.08.19.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美,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2.08.30.
- INVEST KOREA(Park Dong Youl), “Industries and Site-Industries-Semiconductor”
- CEOSCORE DAILY, “중국 반도체 기업 5,700개 사라졌다”…삼성·SK, 중국내 반도체 생산 ‘비상’”, 2023.02.21.
- 뉴스투데이, “독소조항 담은 미 반도체 보조금 규정, 한국 반도체 산업 흔들나”, 2023.03.06.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요인」, Trade focus, 2022년 35호, 2022.12.27.
- 한겨레, “세계 반도체 시장, 내년 4% 역성장 전망...삼성·SK 어쩌나”, 2022.11.30.
- 산업연구원, 「미래전략산업 브리프 제29호」, 2023년 1·2월.
- 연합뉴스, “유럽 반도체 자립 속도...EU 59조 생산지원 반도체법 합의”, 2022.12.02.
- 이투데이,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2022.12.02.
- 아주경제, “반도체산업 육성 ‘K칩스법’, 국회 최종 통과”, 2023.03.30.
- 한국일보, “일본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2023년부터 시행”, 2022.05.11.
- 세계일보, “美 압박에도 ‘반도체 굴기’ 계속...中, YMTC에 2.5조원 투입”, 2023.03.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2022.08.03.
- 경인일보, “반도체 특화단지, 왜 인천인가 - ‘초격차’와 ‘중소기업’ 두마리 토끼 잡기”, 2023.01.15.
- 중부일보,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으로] 글로벌 빅2에 후방산업까지 인프라 완벽”, 2023.01.31.
- 브릿지경제, “인천시 올해 1,500억 펀드 조성...반도체·바이오 등 투자”, 2023.03.26.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자동차산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방·중앙정부 합심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03.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객선도 출발·도착시간,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2023.03.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 2023.03.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 민·관 R&D 160조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이오헬스 산업, 차기 반도체로 도약…핵심인재 11만명 양성”, 보건복지부, 2023.04.06.
- AMRO,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2023 - On the Road to Net Zero」, 2023.04.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앱 하나로 택시부터 항공까지 예약·결제…12월 시범서비스”, 국토교통부, 2023.04.07.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호(2023.04.14)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04월 14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